

우리협회 삼성건설서 특별점검 결과 브리핑 실시



협회는 삼성건설과 맺은 특별점검 용역 결과에 대해 지난 1월 16일 삼성건설 본사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삼성건설 품질경영본부 최경열 전무를 비롯해 김유택 상무, 경영혁신팀 김정민 상무 등 각 사업본부 임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작년 10월 10일부터 27일간 우리협회의 기술사·박사급 기술인력 등 총 27명이 참여해 점검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공사관리 및 품질관리, 가시설물 설치 및 운용상태, 안전관리사항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 내용에 대해 실시되었다.

21세기 초유량 건설사를 지향하고 있는 삼성건설은 우리협회와의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전문가 점검에 따른 위험요소 선 발견 선 조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전문가의 공동참여로 인한 현장 품질 및 안전관계자의 근무 자세 확립과 Win-Win 효과 극대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며, 건기법, 산안법 적용에 따른 지적사항을 예방함으로써 법적제재 사전 예방 및 자율 안전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삼성건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 시행으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Safety-System을 구축해 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용으로 재해율을 감소시켜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 및 기업이윤의 극대화를 이루고 21C 건설안전을 선도하는 세계화의 중심 삼성건설을 이룩한다는 계획이다.



한경보 회장 수원시 토목직 공무원 연찬회에서 특강

한경보 회장은 지난 2월 15일 농림부 농업연수원에서 진행된 수원시 토목직 공무원 연찬회에서 건설안전관리 특강을 실시했다.

수원시 최철규 도로과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진행된 강의에서 한경보 회장은 안전관리자 직무요약,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건설현장 20대 위험 포인트, 건설안전관련법상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의 종류 등 건설안전관리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 하였다.

수원시의 이번 연찬회는 토목행정 이해 도모 및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 토목 설계·시공·우수공법 등 업무능력 함양, 행정 마인드 업그레이드, 인간중심, 고객만족 행정의 실천계기 마련 등 토목분야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고객만족(CS) 행정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수원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소속 토목직 공무원 전원이 참석해 뜨거운 열의를 보여주었다.



연찬회에서 강의중인 한경보 회장
최철규 수원시 도로과장

노동부·안전공단, “해빙기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보급

건설현장에 본격적인 해빙기가 맞아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예방자료가 보급되고 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봄철을 맞아 온도 상승으로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토사붕괴, 가설구조물 등의 붕괴사고가 예상됨에 따라 「해빙기 건설



매경 간담회에 앞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한경보 회장.

현장 안전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등 전국 건설현장에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 가이드라인」은 △건설업종 재해 현황,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공종별 안전점검 요령 등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 수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부와 안전공단은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지반 및 터널 굴착작업과 경사진 장소에서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작업 준수여부와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등을 집중 확인하고 이의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설 구조물 등의 위험요인을 점검하여주고 근로자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공단 홍경표 건설안전실

장은 “본격적으로 건설공사가 시작되는 해빙기에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현장에서는 작업 전 현장주변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이상한 징후가 발견될 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안전점검과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 가이드라인」은 안전공단 안전보건정보서비스(www.kosha.net)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협회 제18기 정기총회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2월 23일 협회 강의실에서 한경보 회장을 비롯해 박구준 부회장 김성진 감사 등 많은 회원들로 성황을 이룬 가운데 2007년 제18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오후 3시에 개최되어 한 시간여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경보 회장의 성원보고와 개회사, 각종보고에 이어 김성진 감사의 총회의사록 초록 접수와 2006년 결산감사

보고가 있었으며 부의안건으로 2006년도 결산보고 및 2007년도 예산(안) 승인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대림산업 안순철 사장과 GLS 김성진 사장, 자드건설 홍재학 건축 본부장, 노동부 김종효 산업재해보장 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각 취임 및 승진해 회원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았다.



협회 정기이사회 개최

우리협회는 2006년 제2회 이사회 및 2007년 제1회 이사회를 2006년 12월 22일과 2007년 2월 13일 각각 개최하고 개회인사 및 성원보고와 개최선언, 각종보고에 이어 전회 이사회 의사초록 접수에 이어 부의 안건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2006년 제2회 이사회에서는 손석현 이사가 컨설팅과 관련해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2006년 제2회 기타토의 사항 및 신입회원 승인명단과 2007년 제1회 기타토의 사항 및 신입회원 승인명단은 다음과 같다.

● 2006년 제2회 기타토의 사항

- 한국방재협회의 업무제휴를 위한 조인식 경과보고와 부연설명
- 노동부에 건의했던 건설안전기술사 상주관련 건 진행사항
- 우리협회의 안전컨설팅 차별화 건
- 특화사업 다각화 등

● 신입회원 승인명단

이열(한국산업안전공단 교수), 김승구(쌍용건설 부장), 김현래(쌍용건설 대리), 양경석(인천국제공항철도 대리), 김대현(SK건설 과장), 황승현(고속철도공단), 김종율(한신공영 과장), 엄윤섭(대우건설 대리), 최덕영(백산건설 과장), 이한규(동부건설 차장), 강부길(진흥기업 팀장), 홍기석(한성종합기술단 차장), 김용수(포스코건설 대리), 오승렬(SK건설 과장), 김태환(안전컨설턴트), 노종근(현대건설 팀장), 한용수(동양건설산업 이사), 임병호(대한컨설턴트 단장), 이근포(한화건설 부사장), 송인철(인덕대 교수) 이상 20명

● 2007년 제1회 기타토의 사항

- 독립채산제의 개선방향 모색
- 회원 기술 및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투자방안
- 교육사업 활성화 방안

● 신입회원 승인명단

신상철(진흥기업 이사), 김수근(일신건영) 이상 2명



- ① 2007년 제1회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진
- ② 감사패를 받고 있는 손석현 이사
- ③ 2006년 제2회 이사회서 발표중인 오중근 이사
- ④ 2006년 제2회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
- ⑤ 2007년 제1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임원진



소방방재청, 해빙기 재난취약지역 예방활동 강화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동절기 폭설, 한파 및 해빙의 영향으로 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축대, 옹벽, 절개지 등에 균열 및 붕괴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4월30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권역별(북부, 중부, 남부, 제주권) 해빙시점에 맞추어 대책기간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 북부권: 서울, 경기, 강원, 인천
- 중부권: 대전, 충남, 충북, 경북
- 남부권: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전남, 경남, 울산
- 제주권: 제주도

지자체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취약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발견 즉시 신속히 보수·정비토록 하는 등 안전대책을 추진토록 하였고, 중앙에서는 해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초에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는 중앙 및 지자체에 전담 T/F팀을 구성, 24시간 긴급대응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별 안전사고가 우려 되는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는 현장에 소방, 경찰, 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중점관리토록 하고, 중앙 및 시·도에 특별 기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안전사고 우려시설을 대상으로 긴급점검 실시,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각 지자체별로 안전점검 예찰활동, 홍보활동, 정비실적 등을 대상으로 주간단위 행동계획을 수립, 실명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대형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관은 문책요구하



지난해 12월 소방방재청 문원경 청장과 강원도 수해지역 이재민 거주시설을 점검한 한경보 회장

고, 관계법령을 위반한 시설물 관리자 및 시설주 등은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또한, 중앙 및 지자체별로 현장 상황관리관을 사전 지정하여 피해규모가 커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중앙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규모는 적으나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현장에 파견, 신속한 수습이나 대응을 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해빙기 안전사고의 최소화를 위하여 경찰, 소방관서, 지방노동청사무소 등 해빙기관련 유관기관과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민간협력 네트워크강화로 재난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민방위 훈련 및 안전점검의날(4.4) 행사를 해빙기 안전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기온이 높아지면서 대형공사장의 조기공사 재개에 대비한 사전안전점검을 강화하여 해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생활주변의 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위험요인 발견 즉시 119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재난부서(☎1588-3650)등에 신고, 발생사고 초기에 위험요인을 정비하여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법무법인 세창 김 현 대표변호사 협회 방문

한국 및 미국변호사이며 법학박사인 법무법인 세창 김 현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세창 소속 조철호 변호사가 지난 1월 30일 협회를 방문, 한경보 회장을 비롯해 박구준 부회장 안태호 전문위원 등과 상호 업무협력 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하였다.

건축과 토목을 종합예술인 동시에 종합과학기술이라 생각한다는 김현 변호사는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한 간다운 삶의 질과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건설현장에서는 점차 종전보다 더 많은 고려사항이 발생되고 다수의 이해관계가 등장하게 되어 업계의 관행이나 협약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를 묶어 '건설판례 이해하기' 라는 저서도 집필한 바 있는 김현 변호사는 향후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는 물론, 협회 회원에게도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경보 회장과 두터운 친분을 맺고 있는 건설전문 변호사로 건설안전기술협회지에 이번호부터 건설관련 판례를



협회를 방문해 한경보 회장과 건설관련 법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법무법인 세창 김현 대표 변호사와 조철호 변호사(가운데 인물이 김현 대표 변호사)

무료로 제공키로 한 김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 및 사법고시에 합격하였으며, 이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워싱턴 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한 건설전문 변호사로 건설교통부·과학기술부·한국철도공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삼성전자 CS 혁신대회에 한경보 회장 영상메시지 전해



한경보 회장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개최된 삼성전자 시스템 영업팀 CS 혁신 추진대회에 영상 메시지를 통

해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경보 회장은 메시지를 통해 지난 2006년은 삼성전자가 B2B CS에 있어 큰 획을 그은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올해에도 고객만족을 기반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초일류기업을 지향하고 인간존중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는 일맥상통한 기업이념을 갖고 있으며,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취적인 사고로 미래를 열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안태호 위원 서울시 일자리 갖기 사업 특별교육서 특강

기술지도부 안태호 전문위원이 지난 2월 28일 구세군 영등포 교회에서 실시된 『2007년 일자리 갖기 사업』 교육 행사서 특별 강의를 하였다.

서울시가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갖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장별 일자리 배치 전에 사업설명, 안전교육 및 현장 안내 등을 실시한 이날 행사에는 700여 명의 예비 근로자들이 참석해 새로운 일자리 갖기에 열의를 보였으며, 안태호 위원은 건설현장에 배치될 일하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법 및 기본적인 안전수칙 등을 강의하였다.



한국산업안전공단, 3월부터 변경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작성 모델 보급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작성 방법이 올 3월부터 변경됨에 따라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작성편의를 돕기 위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작성 모델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의해 개발·보급되고 있다.



산업안전공단 박길상 이사장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5개 공사별로 현장관계자들이 알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모델 5종을 개발, 설명회를 통하여 전국 건설업체에 보급중이다.

건설현장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07. 1.12)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종전의 재해형태별 작성에서 작업공종별 작성으로 바뀌어 제출하도록 개선되었는데, 공단에서 이번에 보급하는 작성모델은 책자형태로 제작되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첨부서류 항목인 공사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

계획, 작업환경 조성계획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특히, 해당 현장의 작업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위험의 크기를 평가하고 위험수준을 제거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기법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공단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모델 보급과 함께 3월 한달간 공단 산하기관별로 지역별 건설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내용 및 작성기법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작성모델 자료 보급 및 설명회 일정 관련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건설안전팀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net), 공단 본부 건설안전실(032-5100-624~8)로 문의하면 된다.

【공사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모델(5종)】

-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등
- ▲ 지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 ▲ 터널건설 등의 공사
- ▲ 댐 건설등의 공사
- ▲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판교 신도시에 '건설안전 체험교육장' 문 열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 등 각종 사고유형을 사전에 직접 체험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 체험교육장」이 설치·운영된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은 1월 18일(목) 오후 2시 판교신도시 현장에서 사업시행자와 공사 참여업체 그리고 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안전 체험교육장」 준공식을 가졌다. 「건설안전 체험교육장」은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상황을 실제 현장과 동일하게 마련된 교육시설에서 근로자가 직접 안전사고 발생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전체면적 630평의 부지에 3층 건물로 건설되는 이 교육장에서는 추락사고 체험, 고층난간 걷기, 사다리 오르기 등 건설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21가지의 안전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체험 및 실습시설로는

- 1층 : 가설경사로, 개구부체험, 가설전기, 안전대 매달리기
- 2층 : 불량통로체험, 정리정돈체험, 안전계단체험
- 3층 : 응급처치 체험실습, 경사면 이동체험, 추락방지 안전망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공사 현장은 대부분의 작업이 옥외에서 이뤄지는 등 작업환경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해(2006년 10월 기준)의 경우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509명이 사망하였으며, 14,392명이 재해를 입었다. 재해발생의 주요 유형으로는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중대재해가 건설사망 재해의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공단은 판교신도시 건설현장내의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계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연중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건설 중대재해를 집중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을 여는 「건설안전 체험교육장」은 신도시 건설시행사와 건설업체가 중심이 된 「건설안전 체험교육장 건립추진위원회」가 비용을 부담하고 산업안전공단이 운영을 하게 된다. 판교신도시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일대 281만평의 부지에 오는 2009년말까지 2만 9천 294세대를 짓는 주택건설공사로 공사참여 인원이 연인원 50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현장이다.

쌍용건설 리모델링의 새역사 열어

국내 최초 지하주차장 건설, 엘리베이터 지하 연장

세대별 7~11평 증축, 인테리어, 조경 등 단지 전체 탈바꿈
기동 방향 전환, 엘리베이터 지하연장 공법 등 ... 각종 특허공법

개발아파트 건물은 그대로 두고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상상 속에서나 가능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쌍용건설(회장 金錫俊)은 1월 9일(화), 국내 최초로 세대 내부 확장과 인테리어, 조경은 물론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엘리베이터를 연결하는 등 방배동 쌍용 예가 클래식(舊 방배 궁전아파트) 3개동 216가구 단지 전체 리모델링에 성공,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금까지 엘리베이터 구조체(피트)는 건물의 내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골조를 둔 상태에서 지하까지 연장하는 것은 아무도 엄두내지 못했던 일. 쌍용건설은 아파트 지하에 건물을 떠받칠 수 있는 임시 구조물을 설치한 후 기존 엘리베이터 구조체 아래를 파고 내려가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엘리베이터 지하연장공법 / 특허 05-91017)동과 동 사이에는 기존 아파트 골조를 지탱한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엘리베이터와 연장했고, 주차장 외에도 자연 채광이 드는 세대별 라커, 서클룸, 주민회의실, 독서실, 헬스클럽 각종 주민 공동시설을 마련했다. 또한 각 세대는 ▶ 28평형이 35평형(84가구) ▶ 36평형이 45평형(60가구) ▶ 42평형이 53평형(72가구)으로 늘어 나는 등 7~11평 가량 면적이 증가했다. 특히, 증축한 부분은 기존 건물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식 내진 구조체 방식으로 별도 시공한 후 기존 골조와 연결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였다. 기존 건물의 기동도 가로, 또는 세로로 90도 전환하는 공법을 개발(특허출원 06-제17872-7호)함으로써 최신 구조의 효율적인 평면을 탄생시켰다. 아파트 외관은 입구를 중심으로 한 저층부는 고전 양식, 중층부는 장식을 절제한 모던 양식, 상층

부는 클래식한 몰딩 장식으로 마감하는 등 포스트 모던 클래식즘으로 구성했고, 엘리베이터 코어는 아케이드식 필로티로 웅장하고 아름답게 연출했다.

한편, 평형별 분담금과 시세는 ▶ 1억원을 분담한 35평형(舊 28평형)이 3억 7천만원에서 약 9억원으로 상승하고 ▶ 1억 3천만원 분담한 45평형(舊 36평형)은 4억 6천만원에서 11억원 대 ▶ 1억 6천만원 분담한 53평형(舊 42평형)은 5억 9천만원에서 14억원 대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궁전아파트 입주인 최금상 씨(56, 여)는 “처음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낡은 집에다 화장만 하는게 아닐까 걱정한 것이 기우였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둬 수익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궁전아파트에서 국내의 그 어떤 건설사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지하주차장 신설과 엘리베이터 지하 연장을 성공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리모델링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며, “조합원의 일시적 자금 부담 해소를 위해 리모델링에도 시중은행에서 공사비 및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게 한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지난 1978년 완공된 방배 궁전아파트는 노후된 시설과 고질적인 주차난 등의 문제로 리모델링을 추진, 2003년 6월 조합원 95.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쌍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05년 7월 착공해 18개월만인 2006년 12월 준공했다.

한편 쌍용건설은 싱가포르의 국보급 호텔인 ‘래플즈 호텔’ (Raffles Hotel), 루이비통사의 아시아 최대 단독 매장

인 ‘루이비통 뉴컨셉트 스토어’ (Louis Vuitton New Concept Store) 등 고급건축 리모델링의 다양한 실적을 바탕으로 방배 경남아파트, 도곡 동신아파트(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한 1호 사례), 당산 평화아파트(비강남권 리모델링 1호 사례) 등의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두산건설 TFT-LCD 유리기판 생산공장 준공식 가져

지난 2월 22일 충북 오창 외
국인 투자지역에서 두산건설이
시공하고 SCHOTT와 구라모토
사에서 발주한 TFT-LCD 유리
기판 연마 가공 공장(연면적
44,960.6m²)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두산건설의
정지택사장, 충청북도지사,
SCHOTT의 칼피터 머즈 부회장, 마호사장, 구라모토의 스
즈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설계 및 시공을 책임지는 일괄수
행방식으로 지난 2005년 11월에 착공하여 짧은 공사 시간
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앞당겨 기술력은 물론이고 공사



수행 및 관리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관련하여
SCHOTT사는 두산건설의 정
지택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
하였다.

한국이 전 세계 TFT-LCD기
판 시장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원재료 생산공장 및 부품관련

업체들이 한국시장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최근 제조업 분야 순수 외국자본의 국내 투
자로는 최대 규모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두산건설
은 시공능력뿐만 아니라 제조공장 설비조립의 기술력까지
보유한 건설사로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1,000m 초고층빌딩도 짓는다”

**국내 최고강도 콘크리트 개발 개가...180Mpa 압력 견디
기둥, 벽 등 구조체 면적 줄어 초고층빌딩 경제성 크게 제고
송도신도시 151층 ‘인천타워’ 등에 콘크리트 기술 적용 예정**

현대건설(사장 李鍾洙)이 최근 국내 최고 강도인
180Mpa(메가파스칼) 콘크리트 개발에 성공, 향후 높이
1,000m 규모의 초고층 빌딩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현대
건설 건축사업본부 초고층팀과 기술연구소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고강도 콘크리트는 180Mpa(1,800kg/cm²) 이상의
압력에도 견디는 초고강도 콘크리트로, 이는 1m²(제곱미
터) 면적당 1만8,000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 6톤짜리 코
끼리 3,000마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강도에 해당한다.

초고강도 콘크리트는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시공
시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로, 콘크리트 강도가 높아질수
록 기둥, 벽 등 구조체 면적이 줄어들어 보다 넓은 내부공
간을 확보할 수 있고, 건물 자체의 무게도 줄어 경제적이
므로 더욱 높은 초고층 빌딩 건설이 가능해진다.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기술력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바

탕으로 이번 180Mpa 초고강도 콘크리트 개발에 성공하는
개가를 올렸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최
고 강도 콘크리트인 150Mpa을 크게 앞서며 향후
1,000m(약 27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 건설도 가능케 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최고 강도인 180Mpa 초고강
도 콘크리트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초고층 빌딩 분야
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의 건설업체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하고, “올해 말 송도신
도시 6 8공구에 착공, 2012년 완공 예정인 151층 규모의
‘인천타워’를 비롯한 초고층 건축물에 초고강도 콘크리트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최고층(69층)인 목동 하이페리온 I 등을 건설
하며 초고층 빌딩 건설에 앞장서온 현대건설은 200Mpa
이상의 극초고강도 콘크리트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
며, 초고강도 콘크리트 외에 초고층 빌딩 관련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켜 향후 초고층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을 보유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불임부부 지원사업 펼쳐 화제

수원시보건소가 불임부부들이 자녀를 가질수 있도록 불임부부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 화제가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수원시가 펼치고 있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시험관아기기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불임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술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적극적인 출산지원 사업이다.

시술기관은 정부에서 지정해준 배아생성 의료기관 125개소로서, 150만원 한도 내에서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신청자는 255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진단서와 건강보험증사본이나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지참하고 보건소에서 접수하면 되며 자녀수, 소득, 연령, 불임기간 차이에 따라 차등 배점한 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대로 선정 지원하게 된다.

수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가 “황금돼지의 해”여서 유난히 임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요즘 아이를 갖고 싶은 부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 2006년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356명을 지원한 바 있다.

금호건설 어울림家 14호 탄생



인천광역시 석남동에 금호건설 아름다운 어울림 자원봉사단에 의한 어울림 家 14호가 지난 1월 탄생했다. 82세 노모와 손녀가 어렵게 생활해야 했던 가옥을 보수해 탄생한 어울림家 14호의 기증으로 이들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2007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름다운 기업 금호건설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펼치고 있는 아름다운 어울림 자원봉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울림家 기증운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화건설 2010년 TOP10 건설사로 도약하기위해 박차 가해

지난 5년간 평균 수주 25%, 매출 22% 증가의 고속 성장을 해온 한화건설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2010년 국내 톱 10 건설사'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화건설은 이를 위해 주택부문 뿐 아니라 토목 플랜트 등 개발형 사업을 늘리고 있는데,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팀과 같이 타 건설사에 없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며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한화건설은 국내 시장을 탈피해 해외건설과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인데, 이는 풍부한 해외공사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석유화학 및 발전 플랜트사업을 대상으로 중동 진출을 점차 가시화하고



(주)한화건설 김현중 사장

있으며, 이를 위해 사우디 현지법인 설립에 착수했으며 연내 1차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에서 돌풍을 일으킨 '인천 에코메트로'와 같은 대형 도시개발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꿈에그린' 브랜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힌 한화건설은 해외부동산 개발사업 다각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시카고, 뉴욕 맨하튼, 알제리 등 미주 및 아프리카 지역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토목분야에서는 인천과 경기도를 잇는 '제3경인 고속도로 사업'을 비롯해 다수의 고속화도로 건설운영사업, 철도 및 항만분야의 건설운영을 위한 사업에도 현재 프로젝트 리더로 참여 중이다.

삼성물산, 해외건설 수주 호조

1월 들어 8억1천만 달러 규모 해외공사 수주
싱가폴 아일랜드파워 복합화력 발전소
두바이 오피스 빌딩 2개동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금년들어 싱가포르와 두바이에서 모두 8억1천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해 국내 업체들의 해외시장 확대에 청신호를 켰다.

삼성물산(사장 이상대)은 싱가포르 아일랜드파워 복합화력 발전소 공사를 6억 달러, 두바이 BD 12&13 오피스빌딩 2개동 공사를 2억1천7백만 달러에 각각 수주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일랜드파워 복합화력 발전소 공사는 미국의 세계적인 민간발전 운영업체인 인터젠(Intergen)사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IPC(Island Power Company)가 발주한 것으로 삼성은 독일의 지멘스(Siemens)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으로 수주했다.

싱가폴 주룽(Jurong)섬 일대에 760MW급 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이 공사의 사업비는 6억 달러로 이 가운데 삼성지분은 2억7천만 달러이며 공기는 28개월.

삼성이 독일의 지멘스와 공동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세라야(Seraya)발전소, 인도네시아 무와르 타와르(Muara Tawar) 발전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삼성은 이번수주로 지멘스사와 장기 전략적 제휴관계를 공고히 하게 됐고 삼성건설 핵심상품 가운데 하나인 발전분야에서 경쟁력과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삼성은 두바이 최대 디벨로퍼인 Emaar사가 발주한 버즈두바이 12&13오피스 신축공사를 터키업체인 바이투르(Baytur)사와 함께 2억1천7백만 달러에 수주했다. 삼성지분은 1억2천만 달러.

삼성이 시공하고 있는 세계 최고층 빌딩인 버즈두바이 프로젝트 단지내에 지상 36층(연면적 10만㎡)과 30층(연면적 9만㎡) 규모의 오피스타워 2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로



올 4월 착공해 2009년 5월 준공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25개월.

한편 버즈두바이 발주처인 이마르(Emaar)사가 버즈두바이 공사에서 보여준 삼성의 초고층 기술력과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해 삼성에게 이번 오피스 빌딩 공사를 수의로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이번 수주를 계기로 삼성은 버즈두바이 프로젝트와 더불어 해외전략 시장의 하나인 UAE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 수주경쟁력을 강화하여 중동지역의 수주확대가 기대된다.

삼성물산 김계호 해외사업본부장은 “이번 수주를 통해 중동지역에서의 수주경쟁력이 강화됐고 발전분야 등 핵심상품에 대한 수주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외 공사는 손실발생의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어 양적수주보다 질적수주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